

기부와 자원봉사 참여의 불평등 비교분석

주성수(한양대)

이 논문은 일부 국가들 사례에서 제기된 기부나 자원봉사활동 ‘참여의 불평등’ 문제를 한국 사회에서의 적용 여부를 탐구한다. ‘참여의 불평등’ 요인들로 꼽히는 소득과 학력은 기부나 자원봉사의 참여에 어느정도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이 같은 소득과 학력 요인들에 비교해 개인의 단체참여 활동, 종교활동, 이웃과 친구들과의 사적 관계망 요인들은 어느정도 나눔활동과 관계되는지, 비교분석에 연구의 초점을 맞춘다. 경험적 분석 결과, 기부 참여 모형에서는 소득 수준, 구호자선단체 회원 활동, 이웃교제 변수들이 기부 참여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원봉사 참여 모형에서는 소득 수준과 교육 수준보다는 구호자선단체와 시민사회단체 회원 활동과 종교단체나 자선단체 지인들과의 교제활동 등 관계망 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나 교육 측면에서 참여의 ‘역량’은 부족하지만, 참여의 여건을 마련해주고, 기회를 제공해줌으로써 참여에 관심을 갖고 참여자가 되도록 이끌어주는 사회적 분위기나 시민사회단체 등의 중개조직의 역할, 사적 관계망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주제어: 자원봉사, 기부, 참여, 참여의 불평등, 소득, 교육, 사회 관계망

1. 머리말

기부나 자원봉사 활동은 활성화되고 있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보다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 생계유지 활동에 바쁜 사람들이 많고, 시간을 다투며 일하거나 공부하는 사람들도 많다. 또 기부나 자원봉사 활동을 생각해보는 마음의 여유가 없는 사람들, 또는 어떻게 참여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또 전통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참여의 여건이나 기회가 제공되지 않아, 교육이나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의 참여가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교육이나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기부나 자원봉사 활동을 더 많이 하는 경우는 어느 사회에서나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저학력, 저소득 계층이나 사회적 소수자들의 참여가 크게 저조해서 ‘참여 불평등’ 문제도 심각한 경우가 있다. 나눔문화가 발달하지 않은 일부 사회뿐 아니라 나눔문화가 발달한 미국, 캐나다 등지의 앵글로색슨 문화권에서도 ‘참여의 불평등’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참여하는 계층이 엘리트 중심으로 국한될 정도로 기부나 자원봉사활동 참여 불평등 현상은 남유럽(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그리스 등)의 ‘엘리트 시민사회’에서 일반화되어 있다는 분석을 참고해볼 만하다(De Hart & Dekker 1999). 또 세계적으로 나눔문화 수준이 가장 높은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중상류층 중심의 참여로 특징되는 노블리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장점보다는 오히려 계층간 ‘참여 불평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Verba et al. 1995; Skocpol 2003; Crenson and Ginsberg 2002).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참여 불평등’ 문제보다 노블리스 오블리주 실천을 더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기부와 자원봉사 활동은 계층간 비교적 고른 참여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경험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참여 불평등’ 요인들로 꼽히는 소득과 학력이 기부와 자원봉사 활동의 참여에 어느정도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이같은 소득과 학력 요인들에 비교해 개인의 단체참여 활동, 종교활동, 이웃과 친구 등과의 사적 관계망 요인들은 어느정도 관계되는지, 비교분석에 연구의 초점을 맞춘다.

2. 이론과 선행연구

1) ‘참여 불평등’ 이론의 배경

기부나 자원봉사 활동의 ‘참여 불평등’ 문제는 개인의 학력, 소득 등 사회경제적 지위가 기부나 자원봉사 참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라는 경험적 자료분석에 기초한다. ‘참여 불평등’ 문제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문제가 심각해서 저학력자나 저소득층의 참여가 매우 저조하고 고학력자나 고소득층이 크게 주도하게 되면서 사회통합의 문제로 심화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기부나 자원봉사활동이 고학력층이나 고소득층이 저학력층이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도와고 나누는 활동으로 구분되는 경우, 이는 일종의 사회적 낙인(stigma)의 문제가 되며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

‘참여 불평등’ 문제는 먼저 ‘시민사회’ 시각에서 제기하는 ‘엘리트 시민사회’ 논의에 초점을 맞춰볼 수 있다. ‘참여 불평등’ 문제가 심각한 사회는 일반 시민의 참여는 저조하고 중상류층 주도의 엘리트가 주도하는 ‘엘리트 시민사회’의 특성을 보여준다. 엘리트 시민사회는 시민들의 시민사회단체 회원활동이나 자원봉사활동이 두드러지게 저조한 시민사회로(De Hart & Dekker 1999, 77), 실제로 엘리트 시민사회의 특성을 가진 남유럽 국가들에서 시민의 기부와 자원봉사 참여율

은 OECD에서 가장 저조하다(주성수 2013).¹⁾

또 세계적으로 기부와 자원봉사가 가장 활성화된 미국과 캐나다에서도 ‘참여 불평등’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2000년 캐나다의 18세 이상 성인의 18%는 자선단체의 전체 기부금 가운데 80%를 기부했고, 또 9%는 자원봉사 활동시간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많은 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Reed and Selbee 2001, 761-2). 이런 기부와 자원봉사 활동의 소수 집단 편중 현상은 미국인 가운데서도 발견되는 현상이 되고 있다. 이른바 ‘80/20 룰’이 등장할 정도로 소수 20% 정도의 그룹이 전체 활동의 80%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들의 기부나 자원봉사 활동은 다양한 사회적 활동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경험적 분석을 뒷받침해준다(Reed and Selbee 2001, 773; Schervish & Havens 1997; Wilson & Musick 1998).

‘참여 불평등’ 문제는 사회통합에 대한 위협이라는 ‘시민사회’ 시각을 참고해볼 수 있다. 버바 등(Verba et al. 1995)은 미국에서 선거캠페인 참여, 모금활동, 편지쓰기, 회의와 집회 참여, 지역사회 봉사활동, 기부 등 정치, 사회적 참여에서 다수인 중저소득층의 참여는 저조하며, 소수인 상류층이 주도하는 참여가 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버바 등이 분석한 미국의 시민사회란 다른 게 아니라 경제적 불평등과 특권의 영역으로, 민주주의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을 평가할 때 시민들의 사회경제적 배경(교육, 소득, 직업 등)이 중요한 결정요인이라는 경험적 분석을 제시한다. 그들은 소득불평등의 영향을 바꿔놓을 수 있는 막강한 시민사회 기관들은 찾아볼 수 없으며, 시민사회 자체가 오히려 소득불평등을 강화시키거나 배가시키고 있다고 분석한다(앞글, 532).

1) 갤럽의 2011년 조사에 따르면(CAF 2012), 기부와 자원봉사 참여율은 스페인 24%와 18%, 이탈리아 33%와 14%, 포르투갈 21%와 10%, 그리스 7%와 3%로, 한국(34%와 27%)에 비교해도 낮은 참여율을 보여준다.

또 역사제도적 시각을 제시하는 스카치폴(Skocpol 2003: 227)은 자원봉사활동이 소외층, 저소득층 등과 ‘더불어 하는 활동’(doing with)보다는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doing for)에 크게 치우쳐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다. 이는 1960년대 이후의 두드러진 현상으로, 단체의 회원보다는 비회원 주도의 자원봉사활동이 늘면서 발생한 새로운 동향이라는 지적이다. 과거에는 시민사회의 단체활동이 계층구분없이 참여하며 계층을 넘어서 ‘더불어 하는 활동’이 많았지만, 이제는 시민사회 단체들이 중상류층 중심의 회원들이 충원되면서 중하류층 참여는 점차 줄면서 단체회원들의 자원봉사활동은 지역의 저소득층이나 소외층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으로 변화되었다고 분석한다(앞글, 227-228). 전통적인 계층 구분이 없는 일반시민 참여형 자선봉사단체들의 회원들은 급격히 줄고, 전문가나 직장 중심의 중상류층 회원조직들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지역사회의 환경문제를 주활동으로 하는 풀뿌리조직들의 활동도 일반 시민들은 거의 참여하지 않고 전문가 집단과 고학력, 고소득자 중심으로 진행되며, ‘참여 불평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 기부와 자원봉사활동 참여 요인들

기부와 자원봉사활동은 일반적으로 개인의 자유의지에 의한 자발성, 대가를 바라지 않는 무급성에 기초한다. 기부나 자원봉사활동의 참여자와 비참여자를 구분하는 주요 요인들 가운데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socioeconomic status: SES)가 되는 교육이나 소득 수준이 가장 중요한 요인들로 분석되어 왔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지위 요인들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망 요인들도 참여의 주요요인이라는 시각을 참고해볼 만하다. 버바 등(Verba et al.

1995)의 ‘시민자원활동(civic voluntarism)’ 모델에 따르면 참여의 과정은 세 가지 서로 구분되는 요인들에 기초한다. 참여의 동기(motivation), 역량(capacity), 관계망(network)이 그것이다. ‘동기’ 측면에서는 기부나 자원봉사에 관심을 갖고 있거나 참여의 중요성이나 참여에 필요한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보며, 불참자는 관심이 없거나 기부나 자원봉사 활동의 중요성이나 정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간주한다. 또 ‘역량’ 측면에서는 참여자는 참여에 필요한 개인적 역량(학력 또는 소득 등)을 갖추고 있는 사람으로 본다면, 비참여자는 이런 역량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나아가 ‘관계망’ 측면에서는 참여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하고 기회를 제공하는 관계망의 역할이 중요하다. 누군가 또는 어떤 단체에서 참여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중요해, 참여 요청을 받으면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동기’ 측면에서는 참여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역량’ 측면에서는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관계망’ 측면에서는 참여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참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참여 불평등’ 문제를 분석하는 ‘사회경제적 지위’ 모델에서는 교육, 소득, 직업 등의 ‘역량’에 분석의 초점을 맞춰, 역량이 많기(적기) 때문에 동기 유발도 적절(부족)하고, 관계망도 적절(부족)해서 참여(불참)이 선택되는 것으로 본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시민자원활동’ 모델에서는 ‘역량’보다 ‘관계망’에 초점을 맞춰 교육이나 소득 측면에서 역량이 부족한 사람들도 이웃관계와 단체활동 등의 사회 관계망을 통해 참여하고자 하는 충분한 동기 유발을 갖고 실제로 참여자가 되고 있다고 본다.

사적 관계망 가운데 친구나 동료 등 누군가의 요청은 세계 어느 곳에서나 보편적인 기부와 자원봉사의 참여 동기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인들도 누군가의 요청을 받아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2011년 조사에서

지난 1년동안 자원봉사 요청을 받았는지 질문한 결과, 자원봉사자의 56%가 권유받은 경험이 있고, 비자원봉사자의 9%만이 권유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볼런티어21 2011, 88). 또 기부의 다양한 동기 가운데 “기부요청을 받아서”(46%)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또 다른 17%는 “주변에서 하기 때문에” 기부에 동참했다고 한다(박세경 2009, 134). 또 볼런티어21의 2011년 자료에서는 기부처의 요청(43%), 친구나 동료의 요청(34.6%)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미국에서는 2001년 기부요청을 받은 사람 57%가 실제로 기부에 동참했고 또 절반의 사람들이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도록 요청을 받았고, 요청 받은 사람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한 비율은 71%로 요청받지 않아 자원봉사를 하지 않은 사람들 29%보다 참여율이 훨씬 높았다(Independent Sector 2001). 또 유럽 9개국에서도 자원봉사를 시작한 중요한 동기가 누군가 요청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53%에 달했다(Gaskin & Smith 1997). 캐나다 통계청의 조사에서는 종교적 기부를 제외한 ‘자선적 기부’에서 기부의 매개요인으로 거리나 쇼핑센터 32%, 누구에 대한 후원 30%, 방문요청 26%, 우편요청 23%, 자선행사 23%, 직장 22% 순으로 ‘누구로부터의 요청’이 가장 중요했고, 이와는 대조적으로 스스로 했거나 TV 요청은 10%와 5%에 지나지 않았다(Volunteer Canada 2010).

3) 개인의 역량과 사회적 관계망

위와 같이 ‘시민자원활동 모델’이 제시하는 ‘역량’과 ‘관계망’의 분석틀에 기초해, 기부와 자원봉사활동의 참여 요인들에 대한 국내외의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정리해볼 수 있다.

(1) 개인의 역량 : 교육수준과 소득수준

개인의 역량을 축적되는 ‘인적 자본’은 사람들로 하여금 기부나 자원봉사 활동의 자격을 갖게 해주고, 활동자를 필요로 하는 조직에게는 그 사람들에게 더 매력을 갖게끔 해준다고 볼 수 있다(Wilson and Musick 1997, 698). 더 많은 교육을 받거나 더 많은 소득을 가진 사람들이 기부나 자원봉사에 더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반적으로 자본이란 무엇이 생산되는지, 생산물과 밀접히 관련되는데, 인적 자본 이론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교육, 기술, 소득과 같은 자원들을 기부나 자원봉사에 투입해 공동체 공익에 기여하며 동시에 자신들의 욕구도 충족시키는 합리적 행위자로 간주한다(이현기 2009, 322). 일반적으로 소득이나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저소득이나 저학력 계층에 비해 기부나 자원봉사활동에 더 많이 참여한다. 높은 교육수준은 지적 능력뿐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과의 유대, 사회조직 활동을 의미하기 때문에 중요한 인적 자본으로 꼽힌다(McPherson and Rotolo 1996). 소득과 학력이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기부나 자원봉사 활동의 참여를 높이는 것은 높은 지위가 높은 수준의 기술과 지식 그리고 더 많은 사적 관계망을 형성하기 때문이며, 이런 네트워크들이 풍부한 사람들이 여러 조직들에서 중요한 참여자로 우선적으로 충원된다(Wilson and Musick 1997, 710).

선행연구들의 경험적 분석결과에서는 자원봉사자와 비자원봉사자의 차이는 교육과 소득 수준에서 두드러진 차이가 있었으며, 종교활동도 같은 결과를 보여준다(Butrica et al. 2007, 10-11). 또 교육수준이 높고 건강상태가 양호하며, 사회활동에 적극적인 노인들이 참여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Erlinghagen and Hank 2005, 9). 또 55세 이상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학력과 소득은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는 주요 요인으로 분석하고(이현기 2009, 336), 또 자원봉사자와 비자원봉사자

의 차이는 교육과 소득 수준에서 두드러진 차이가 있다(Erlinghagen and Hank 2005, 10-11). 미국 주(state) 차원의 비교연구에 따르면, 고졸 이상의 학력자가 많은 주에서 더 많은 자원봉사활동이 이뤄지고 있다(CNCS 2010, 7).

(2) 사회적 관계망 : 친교활동과 단체활동

또 ‘사회적 관계망’도 기부나 자원봉사 활동의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많은 사회활동을 통해 폭넓은 사회적 관계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지역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알고 교제하며 폭넓은 사회적 관계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기부나 자원봉사활동에 더 활발하며, 또 참여자들은 자원봉사 등 지역사회 활동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며 사회적 관계망을 확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Smith and Gay 2005, 10). 친구나 직장, 종교단체, 사회단체 지인들과의 친교를 통한 참여가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사회적 관계망이 넓은 사람들이 기부나 자원봉사 활동참여 요청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종교단체나 자원봉사단체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회원들과의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기부나 자원봉사의 규범을 공유하며 실제로 참여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Einolf 2009, 184).

실제로 기부나 자원봉사활동은 다양한 복지단체나 시민사회단체를 매개로 이뤄지고 있는데, 이 조직들에 소속되어 회원으로 활동하는 개인들이 많은 활동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또 이 조직들이 많은 기부자나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기부나 자원봉사 활동이 활성화된다고 볼 수 있다. 복지기관 등의 수요처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 등 참여자를 모집해 공급하는 공급처의 역할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기부나 자원봉사 활동은 수요(참여자의 특성)와 공급(조직의 역할)의 균형에 의해 활성화된다고 볼 수 있다. 지역사회 차

원에서도 인구에 비례해서 많은 비영리조직들을 갖고 있는 지역에서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많은 자원봉사활동이 이뤄진다는 미국 국가봉사단(CNCS 2010, 9)의 연구결과를 참고해볼 만하다. 또 적절한 소득을 갖고, 좋은 건강을 유지하며, 강력한 사회적 관계망과 종교단체에 소속되어 있고, 지역사회에 강한 연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원봉사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한다(Ruthford 2006, 8). 또 “사회경제적 신분이 높고, 기혼자로, 종교와 일자리를 갖고 있으며, 자신이 건강하다고 평가하며, 광범한 사회적 관계망을 갖고” 있으면, 자원봉사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Warburton et al. 2001, 588).

3. 노블리스 오블리주와 ‘참여 불평등’

기부와 자원봉사의 참여율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소득이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많이 참여하는 정비례 관계를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은 소득을 가진 사람들이 기부나 자원봉사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며 ‘노블리스 오블리주’ 문화를 형성한다.

1) 기부 참여율 : 교육과 소득 수준

먼저 기부 참여율은 교육과 소득 수준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은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경험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미국인의 자선적 기부를 보면, 2007년 56% 정도의 참여율을 보여주는데, 고졸 이하 저학력층(41.7%)에 비해 대학졸업 이상 고학력층의 기부율(82.5%)은 두 배, 연 10만불 이상의 고소득층의 기부율(84.6%)은 연5만불 이하의 저소득층의 기부율(39.4%)에 두 배가 넘는다(Center on Philanthropy 2007). 영국통계청(CLG 2010) 자료에서도, 고소득층의 기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 있다. 연간 5천 파운드 이하의 저소득층 기부율이 69%이지만 연간 7만5천 파운드 이상의 고소득층의 기부율은 86%로 높다. 캐나다에서도 중졸이하의 저학력에서 대학졸업의 고학력까지의 ‘자선적 기부’ 참여율은 7% -> 18% -> 30% -> 45%로 높아지며, 소득 수준에서도 연간 2만불 이하 저소득층부터 12만불 이상의 고소득층까지의 기부 참여율은 3% -> 8% -> 13% -> 14% -> 11% -> 13% -> 38%로 높아진다(Turcotte 2012, 29).

한국에서도 통계청(2006, 2009, 2011)의 자료를 분석해보면 저학력에서 고학력으로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기부 참여율은 크게 높아진다. 대졸 이상 고학력자의 기부 참여율이 초졸 이하의 저학력자의 참여율보다 두 배 이상 높다. 그리고 시계열(2006-11년) 추세를 보면, 저학력층의 참여율은 정체되어 있지만, 고학력층의 참여율은 점차 늘고 있다는 점이다.

또 소득 수준에서도, 저소득층에서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참여율이 비례적으로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2011년 현재 월소득 6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이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에 비해 세 배 이상 높은 기부 참여율을 보여준다. 그런데 시계열(2006-11년) 추세를 보면, 1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의 참여는 오히려 줄었고, 다른 소득계층의 참여는 점차 늘고 있는 변화를 주목해볼 만하다. 그럼에도 최근 경제침체가 지속되면서 중고소득층의 기부 참여도가 다소 감소한 반면에 저소득층 참여는 현상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통계청 2014).

2) 자원봉사 참여율 : 교육과 소득 수준

한편 학별 수준별 자원봉사 참여율에서는 저학력층의 참여율은 고학력층의 참여율에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않는다. 한국갤럽과 볼런티

어21의 자료를 분석해보면, 2002년에는 중졸자의 참여가 가장 높았지만, 2005년 이후부터는 대재 이상 학력자가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여준다. 또 자원봉사 참여율은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높아지는 정비례 관계를 보여준다. 유럽 14개국 분석 결과를 보면, 자원봉사 참여율이 저소득층(16%)에서 -> 중저소득층(21%) -> 중간소득층(27%) -> 중상소득층(34%)로 높아진다(Anheier & Salamon 2001, 10). 미국의 경우, 연간 1-2만불 미만(34%)부터 2-3만불 미만(45%) -> 3-4만불 미만(46%) -> 4-5만불 미만(53%) -> 5-7.5만불 미만(60%) -> 7.5-10만불 미만(65%) -> 10만불 이상(69%)으로 꾸준히 높아진다.

한국에서도 저소득-저참여, 고소득-고참여 가설도 통계청의 시계열(2006-11년) 자료에서는 사실인 것으로 확인된다. 중요한 것은 중고소득층의 참여는 점차 늘고 있는데 반해, 저소득층의 참여는 정체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최근 2011-13년 기간에는 경제침체의 영향으로 고소득층의 참여가 다소 감소한 반면에 저소득층의 참여는 현상유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통계청 2014).

4. 기부와 자원봉사 활동의 경험적 분석

1) 자료와 변수

경험적 분석에 활용하는 자료는 볼런티어21과 한국갤럽이 공동으로 조사한 2011년의 전국 설문자료로, 20세 이상 인구 1,5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자료에 소개되는 기부와 자원봉사는, 지난 1년간 기부나 자원봉사를 한 적이 있는지를 물었는데, 자원봉사의 개념에 대해서는 “그룹 또는 단체를 통하여 자발적으로, 보수를 받거나 기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나 지역사회를 돕는 것과 같은 공익활동”으로, 또 기부

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돈(재산)이나 물품을 내는 것”으로 소개되는데, 아래의 분석에서는 종교단체에 내는 헌금이나 시주 등을 제외한 ‘자선적 기부’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종속변수로서 기부 참여는 지난 1년간 자선적 기부에 참여 또는 불참, 자원봉사 참여는 지난 1년간 자원봉사활동 참여 또는 불참으로 양분되어 있다.

독립변수들은 경험적 분석들에서 제시된 ‘역량’ 변수들과 ‘관계망’ 변수들을 중심으로, 여기에 개인의 성, 연령 변수들을 추가하였다. 역량 변수들로는 교육수준과 소득수준 두 가지를, 그리고 ‘관계망’ 변수들로는 단체활동 유형(3가지), 사적 관계망 유형(4가지)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경험적 분석의 초점은 역량 변수들과 관계망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 비교에 있으며, 또 관계망 변수들 가운데 어떤 단체활동, 어떤 사적 친교활동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분석하는데 있다.

먼저 종속변수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기부와 자원봉사에 참여한 사람은 각기 49.5%와 21.4%로, 기부 참여자가 두 배 이상 많았다. 독립 변수들의 경우, 남녀 비율과 연령별 분포가 비교적 고르며, 교육과 소득 계층 분포 또한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단체활동에서는 친목과 동창/향우회 활동이 가장 많고, 구호자선단체, 시민사회단체 활동은 비교적 저조하다. 사적 관계망에서는 이웃과의 친교활동이 가장 빈번하며, 자선단체 지인과의 친교시간은 다소 드물게 나타났다.

〈표 1〉 종속 변수와 독립변수들의 일반적 특성

종속/ 독립변수	하위 차원		표본의 특성 (빈도, %)	
기부 자원봉사	참여		49.5%	
	불참		50.0	
	참여		21.4	
	불참		78.6	
성별	남자		49.3%	
	여자		50.7	
연령	20-29		17.3%	
	30-39		21.3	
	40-49		22.5	
	50-59		18.8	
	60세 이상		20.1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7.9%	
	고교 졸업		40.0	
	대재 이상		42.1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21.9%	
	200-299만원		20.9	
	300-399만원		27.9	
	400-499만원		15.6	
	500만원 이상		12.2	
<공식 단체활동> 구호단체 시민사회단체 종교모임	회원		5.4%	
	회원		3.0	
	회원		20.3	
<사적 친교활동> 이웃과 친교 직장/단체 지인 종교단체 지인 자선단체 지인	주1-2회이상	월1-2회이상	1년 몇차례	전혀 없음
	37.1%	28.3%	17.1%	17.5%
	17.7%	21.8	16.0	44.5
	17.4%	9.5	12.3	60.7
	3.8	7.1	8.6	80.5

2) 기부와 자원봉사 참여율 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먼저 기부 참여 모형에서는 소득 수준, 구호자선단체 회원 활동, 이웃교제 세 변수들이 기부 참여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구호자선단체 활동자이고, 이웃과 잦은 교제를 하는 사람일수록 기부 참여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관계임을 보여준다. 또 자원봉사 참여 모형에서는 소득 수준과 교육 수준 모두가 자원봉사 참여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회경제적 지위 또는 인적 자본 변수들보다는 구호자선단체와 시민사회단체 회원 활동과 종교단체나 자선단체 지인들과의 교제 활동 등 관계망 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기부와 자원봉사 참여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1) 기부 참여		2) 자원봉사 참여	
	비표준화 계수	표준편차	비표준화 계수	표준편차
상수	-5.039	1.096***	-10.239	1.332***
성	-.303	.115**	.055	.171
연령	-.041	.054	-.027	.080
교육수준	-.065	.106	-.156	.0159
소득수준	-.195	.047***	-.098	.069
성	-.303	.115**	.055	.171
연령	-.041	.054	-.027	.080
교육 수준	-.065	.106	-.156	.159
월평균 소득	-.195	.047***	-.098	.069
구호자선단체	1.540	.334***	1.600	.330***
시민사회단체	.841	.388	1.348	.429**
종교단체	.181	.177	.259	.239
이웃교제	.209	.054***	-.067	.081
직장단체지인	.010	.052	.057	.076
종교단체지인	.133	.062*	.212	.086*
자선단체지인	.118	.082	1.515	.111***

*.05 ** .01 ***.001.

그럼에도 이같은 분석에서 주요 변수로 제시된 구호자선단체, 시민사회단체 회원활동, 그리고 자선단체와 종교단체 지인들과의 친교활동은 개인의 소득이나 교육 수준과 어느정도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소득이나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이 단체활동도 많고 타인과의 친교활동도 더 활발하다는 것을 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다.

먼저 단체활동을 소득과 교육 수준별로 분석해보면(표 3), 구호자선단체와 시민사회단체의 경우 소득과 교육수준이 높아지면 참여율도 높아지는 비례적 관계를 보여줘 단체활동 ‘참여 불평등’ 문제가 드러난다. 그러나 종교단체활동에서는 소득수준별 차이는 비교적 뚜렷하지만, 교육수준에서는 대재 이상의 고학력자 참여자 오히려 가장 저조하게 나타난다.

또 타인과의 친교활동을 통한 사적 관계망에서도 종교단체의 영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자선단체 지인과의 친교활동에서는 교육과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친교활동이 더 활발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종교단체 지인과의 친교활동에서는 소득계층별 활동수준의 차이는 중고소득층과 고소득층을 제외하면 비교적 고른 편이며, 교육수준에서는 오히려 저학력층의 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나타난다. 사적 관계망에서도 종교단체 지인과의 친교활동이 ‘참여 불평등’ 문제를 어느정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표 3〉 소득과 교육 수준별 단체참여와 친교활동* 비율 :

	<소득수준>					<교육수준>		
	저소득	중저	중간	중고	고소득	중졸	고졸	대제이상
구호단체	3.7%	4.1%	4.8%	6.0%	12.0%	4.1%	5.0%	6.3%
종교단체	18.6	20.1	21.1	17.1	26.8	22.3	20.2	19.7
시민사회단체	2.4	4.1	2.6	1.3	5.5	3.0	2.7	3.3
자선단체 지인	6.1	10.2	11.4	11.9	18.6	6.3	11.8	12.0
종교단체 지인	25.3	26.2	24.9	29.0	33.3	27.9	26.6	26.8

참고: *친교활동은 월1-2회 이상 자주 만나는 비율(%).

자료: 볼런티어21, 2011 data file 분석.

3) 기부와 자원봉사 기여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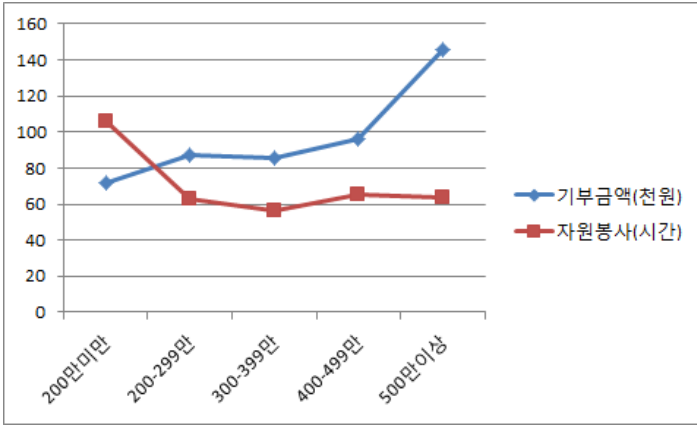
기부와 자원봉사 활동의 참여 요인에 대한 분석을 보충하기 위해, 기부와 자원봉사활동의 깊이(기부금과 자원봉사 활동시간)로 측정된 기여도에서는 학력이나 소득 계층간 격차가 어느정도 심한지에 분석의 초점을 맞춰볼 수 있다.

(1) 기부금과 자원봉사활동시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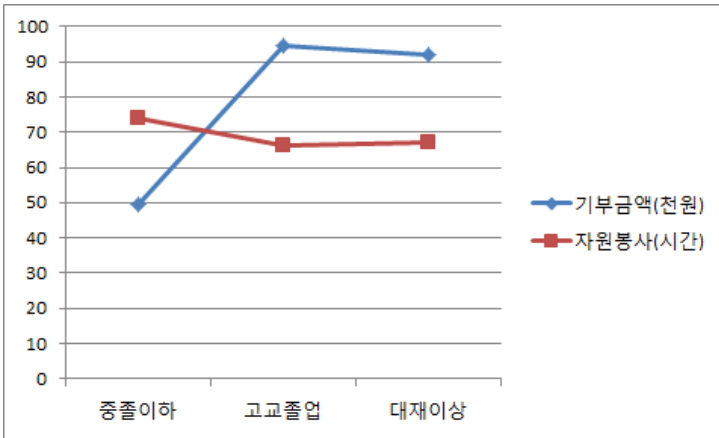
먼저 볼런티어21(2011)의 자료에 기초한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저소득층에 비해 고소득층이 기부금액에서는 더 많이 나누고 있지만, 자원봉사 활동시간에서는 저소득층이 더 많은 활동시간을 내고 있다. 캐나다의 2004, 2007, 2010년 자료에서도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원봉사활동 시간은 더 많지만,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더 많은 자원봉사 활동시간으로 보여준다(Vézina and Crompton 2012, 41).

또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기부금액에서는 고학력층 기여도가 높지만, 자원봉사 활동시간에서는 저학력층 기여도가 더 높다.

〈그림 1〉 소득수준별 기부금과 자원봉사시간



〈그림 2〉 교육수준별 기부금과 자원봉사시간



(2) 소득 대비 기부금 비중 비교

나아가 기부금이 개인의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또 다른 기부활동의 특징을 발견하게 된다. ‘소득 대비 기부금 비중’에서 고소

득층보다 저소득층이 비교적 더 많이 기부하고 있다는 것이 한국뿐 아니라 미국과 캐나다 등지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기부금이 가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저소득층부터 고소득층까지 4.2% -> 3% -> 3% -> 2.7% -> 2.7%로 뚜렷하게 낮아진다(Giving USA 2010). 또 지난 2006-12년 기간의 미국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소득이 2만5000달러이하 저소득층의 전체 소득대비 기부금 비율은 6년새 16.6%포인트 높아진 반면 소득이 20만달러 이상인 고소득층의 비율은 오히려 4.5%포인트 낮아졌다(Daniels and Narayanswamy 2014). 캐나다에서도 2007년 연간 2만불 이하 가계의 기부율은 1.6%, 10만불 이상 고소득층에서는 0.5%에 불과해, 세 배 이상의 차이를 보여준다(Statistics Canada 2007).

한국에서는 2010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부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소득금액 8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구간이 2.08%로 가장 높았지만, 1억원 초과 구간에서는 기부금의 비율이 오히려 감소해, 5억 이상 고소득층에서는 1.62%에 불과했다. 한편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자가 전체 기부금 신고자의 30.8%를 차지했으며 전체 기부금액 대비 이들이 차지한 비율도 30.0%로 가장 활발한 기부활동을 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국세청 2011).

또한 한국갤럽과 볼런티어21(2011)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기부금액에서는 고소득층인 관리직과 전문/자유직의 기부금액은 종교단체 기부(헌금과 시주 포함)에서는 고액 기부로 나타나지만, 이런 종교적 기부를 제외한 공익적인 자선 기부액에서는 판매/서비스직이나 자영업직보다 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²⁾ 설문 자료를 분석해보면, 기

2) 2011년 지난 1년간의 자선적 기부금은 판매·서비스 51.3만원과 자영업 50.2만원으로 가장 많고, 경영·관리직과 전문·자유직이 같은 43.5만원, 기능·숙련직 40.7만원, 사무·기술직 29.8만원 농업어업자 29.3만원이다(볼런티어 21, 2011).

부참여율과 ‘소득 대비 기부금 비율’은 역비례 관계를 보여준다(표 4). 소득이 높아질수록 기부참여율은 높아지지만, ‘소득 대비 기부금 비율’은 낮아지는 현상이 뚜렷하다.

〈표 4〉 기부 참여율과 기부금액 : 소득수준별, 2011

월 소득 수준	기부 참여율	소득대비 기부금*
200만 미만	58.2	1.6%
200-300만	62.7	0.7%
300-400만	64.3	0.8
400-500만	66.7	0.8
500만+	71.0	0.8

참고: * 소득계층별 중위소득의 연간 합계에서 연간 기부금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볼런티어21 data file.

5. 결론 및 제언

한국인 기부와 자원봉사 활동은 실제로 서구형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추종하는 경향이 있지만, 저학력/저소득층의 낮은 참여에 따른 ‘불평등’ 문제보다는 고학력/고소득층의 참여를 독려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주’ 문제가 더 많은 관심의 초점이 되어 왔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때문인지 기부나 자원봉사활동에서 중상위층의 참여도는 다른 계층에 비해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해온 것이 설문자료 분석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한편 최근까지 기부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자원봉사 활동은 정체되는 추세를 주목해볼 만하다. 시간집약적인 자원봉사를 자본집약적인 기부로 대신하는 동향이 한국에서도 엿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경험적 분석에서 확인되었듯이 기부는 자원봉사보다는 개인의 소득이나 교육 등의 역량에 더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참여의 불평등’ 문제를 제

기하므로, 자원봉사를 대신하는 기부활동의 추세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Putnam 2000; Andreoni et al. 1996). 사람들 사이의 직접적인 만남, 대화, 유대를 통한 사회자본의 축적이 유실되기 때문이다. 기부보다는 자원봉사가 개인적 접촉 등 사적 관계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분석(Lee et al. 2001)을 참고할 만하다. 자원봉사는 감소되는 대신 기부가 늘게 되면,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사람들의 역량에 기초하는 참여가 확대되면서 이들의 목소리가 시민참여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익활동을 주도하고 소외층의 참여를 더욱 소외시키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Ostrander & Schervish 1990; Skocpol 1999, 2003).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참여 불평등’ 문제가 제기될 만한 일부 두드러진 변화가 있다는 것을 주목해볼 만하다. 하나는 기부나 자원봉사에 대한 시민의식이며, 다른 하나는 중개기관이나 수요기관들의 모집과 홍보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기부는 여유있는 사람들이 참여한다는 인식이 있지만, 자원봉사에 대해서도 같은 생각을 하는 사회적 인식이 있는 것 같다. 일례로 2011년 서울시자원봉사센터(2011)가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자원봉사자는 주로 돈이 많고 여유로운 사람들이다”라는 인식에 공감하는 비율이 39.4%로, 공감하지 않는다는 사람(36.6%)보다 더 높다. 공감한다는 사람의 비율이 비자원봉사자(39%)보다 자원봉사자(40.8%)가 오히려 더 높고, 남녀, 연령, 직업별 차이 없이 고루 공감하고 있다.³⁾ 또 다른 자료는 청소년 자원봉사 참여와 향후 참여의향에 관한 통계청의 2011년 사회참여 조사결과인데, 청소년의 가구주 학력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지만 가구주 소득에

³⁾ 공감한다는 비율은 남자 40.9%, 여자 37.9%, 연령별로는 20대 42.6%, 30대 37.1% 40대 39.8%, 50대 40.5%, 60대 이상 37.0%이며, 직업별로는 사무/관리직 39.5%, 생산직 40.5%, 자영업 41%, 가정주부 37.8%, 학생 41.6%, 무직 28.9%이다. 조사는 15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서는 자원봉사 참여율의 차이뿐 아니라 향후 참여의향에서도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소득수준이 낮은(월 200만원 미만) 가구의 중고생 참여율은 전체 평균(78%)보다 훨씬 낮은 45%이며, 또 향후 참여의향에서도 전체 평균(76%)보다 훨씬 낮은 15%를 보여준다(주성수 외 2012).⁴⁾

또 다른 문제는 ‘참여 불평등’을 조장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관리 문제이다. 자원봉사자 모집 광고나 프로그램에는 학력이나 연령을 제한하는 사례는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자원봉사센터나 사회복지기관 등의 자원봉사 모집에서, 자원봉사자 자격을 “대학생 이상”으로 학력 제한을 두는 경우, 연령을 제한하는 경우⁵⁾ 등 자원봉사활동의 ‘참여 불평등’ 문제를 일으킬 만한 관행은 나눔문화의 활성화에 장애가 된다. 또한 최근 ‘노블리스 오블리주’나 ‘재능기부’를 중시하는 언론이나 정부기관 등의 사회적 분위기도 기관이나 단체들이 ‘참여 불평등’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한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접수 2014. 10. 8. 심사완료 11. 21. 게재확정 11. 28)

4) 주성수 외(2012). 이 자료는 통계청의 사회참여 조사 data file의 중고생 5,303명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5) “학습지도(한글 읽기, 쓰기)봉사자 모집”, “발달장애아동 방과후 교실 활동보조 자원봉사자 모집.” 등 학력과 무관한 활동에 대해서도 대학생 이상으로 참여자격을 제한시키고 있고,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하여 급식지원(도시락배달 및 경로식당 급식/배식)“(20-55세), ”의약품 안전사용 창작인형극 안전요원 도우미 모집“(20-40대), “외래환자 안내봉사자 모집”(60대 미만의 여성) 등 장년층의 참여를 제한시키는 경우도 혼함(주성수 외 2012).

참고문헌

- 박세경 외, 2009. 「사회자본과 민간 복지자원 수준의 국가간 비교연구」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 이현기. 2009. “생산적 노화활동으로서 노인자원봉사활동.” 『노인복지연구』, 45, 317-346.
- 이현기. 2010. “노인 자원봉사활동과 사회자본.” 『노인복지연구』, 50, 263-290.
- 서울시자원봉사센터. 2011. 「서울시민의 자원봉사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 주성수. 2011. "활성적 공동체에서의 노후 자원봉사활동." 『시민사회와 NGO』, 9(2), 3-32.
- 주성수 외. 2012.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제2차 국가기본계획」. 안전행정부.
- 주성수. 2013. 『자원봉사 문화와 제도』. 한양대 출판부.
- 통계청. 2014. “국내 나눔실태 2013.”
- Andreoni, J., Gale, W., & Scholz, J. 1996. *Charitable Contributions of Time and Money*.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 Borgonovi, F. 2008. “Divided We Stand, United We Fall : Religious Pluralism, Giving and Volunteering.”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3, 105-128.
- Brown, E., & Ferris, J. 2007. “Social capital and philanthropy: An analysis of the impact of social capital on individual giving and volunteering.”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36(1), 85-99.
- Butrica, B., Johnson, R. and Zedlewski, S. 2007. *Volunteer Transitions among Older Americans*. Washington, D.C. : The Urban Institute.
- CAF(Charity Aid Foundation) 2011. *World Giving 2011*.
www.cafonline.org/pdf/WorldGivingIndex28092010Print.pdf (2013. 10. 12 검색)
- CEV. 2007. *Volunteering in the Netherlands*.
http://www.cev.be/data/File/Facts_Figures_NL_FINAL.pdf (2013. 10. 10 검색)
- CNCS. 2010. *Volunteering in America : Issue Brief*.

<http://www.volunteeringinamerica.gov/assets/resources/FactSheetFinal.pdf>

(2013. 10. 12 검색)

- Daniels, A. and Narayanswamy, A. 2014. "The Income-Inequality Divide Hits Generosity." *The Chronicle of Philanthropy*, October 6, 2014.
- De Hart, J. and Dekker, P. 1999. "Civic Engagement and Volunteering." In van Dethetal. eds, *Social Capital and European Democracy*. London: Routledge.
- Einolf, C. 2009. "Will the Baby Boomer Volunteer during Retirement?"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38(2), 181-199.
- Erlinghagen, M. and Hank, K. 2005. "Participation of Older Europeans in Voluntary Work." Mannheim Research Institute for the Economics of Aging.
- Eurobarometer. 2012. *Special Eurobarometer 378 : Active Ageing Report*.
- Gaskin, K. and Smith, J. 1997. *A New Civic Europe? A Study of the Extent and Role of Volunteering*. London: Volunteer Centre UK.
- GHK. 2010. *Volunteering in the European Union*.
- Goss, K. A. 1999. "Volunteering and the Long Civic Generation."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28(4), 378 - 415.
- Independent Sector. 2001. *America's Informal Volunteers*. Washington, DC.
- Independent Sector. 2002. *Giving and Volunteering in the United States 2000*. Washington, DC.
- Jackson, E., Bachmeier, M., Wood, J. R., & Craft, C. 1995. "Volunteering and Charitable Giving."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24(1), 59-78.
- Jones, K. 2006. "Giving and Volunteering as Distinct Forms of Civic Engagement."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35(2), 249-266.
- Lee, L., Pillaven, J., & Call, V. 1999. "Giving Time, Money, and Blood: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Social Psychological Quarterly*, 62(3), 276-290.
- McPherson, J. Miller, and Thomas Rotolo. 1996. "Diversity and Change in Voluntary Group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1, 179-202.
- OECD. 2011. *Society at a Glance*. Paris.

- O'Neil, M. 2001. "Research on Giving and Volunteering: Methodological Considerations."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30(3), 505-514.
- Ostrander, S., & Schervish, P. G. 1990. "Giving and Getting: Philanthropy as a Social Relation." In J. Van Til & Associates eds. *Critical issues in American Philanthropy*. San Francisco: Jossey-Bass.
- Park, J. and Smith, C. 2002. "To Whom Much has Been Given." *Journal of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39(3), 272-286.
- Putnam, R.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Simon & Schuster.
- Rajulton, F. Ravanera, Z, and Beaujot, R. 2007. "Measuring Social Cohesion: An Experiment Using the Canadian National Survey of Giving, Volunteering and Participating." *Social Indicators Research*, 80, 461-492.
- Reed, P. and Selbee, L. 2001. "The Civic Core in Canada: Disproportionality in Charitable Giving, Volunteering, and Civic Participation."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30(4), 761-780.
- Schervish, P., & Havens, J. 1997. "Social Participation and Charitable Giving : A Multivariate Analysis." *Voluntas*, 8(3), 235-260.
- Schervish, P., & Havens, J. 2001. "Wealth and the Commonwealth."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30(1), 5-25.
- Skocpol, T. 1999. "Recent Transformation of Civic Life." In Skocpol, T, and Fiorina, M. eds. *Civic Engagement in American Democracy*,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 Skocpol, T. 2003. *Diminished Democracies: From Membership to Management in American Civic Life*. Norman, OK: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 Smith, D. H. 1994. "Determinants of Voluntary Association Participation and Volunteering."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23(2), 243-263.
- Smith, D. and Gay, P. 2005. "Active Aging in Active Communities: Volunteering and the Transition to Retirement." Institute for Volunteering Research, Bristol: UK.

- <http://www.jrf.org.uk/sites/files/jrf/1861347626.pdf> (2013. 10. 9 검색)
- Turcotte, M. 2012. "Charitable Giving in Canada." Canadian Social Trends. Statistics Canada. <http://www.statcan.gc.ca/pub/11-008-x/2012001/article/11637-eng.pdf> (2013. 9. 27 검색)
- Van Til, J. 2000. *Growing Civil Society: From Nonprofit Sector to Third Space*.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 Verba, S., Schlozman, K., and Brady, H. 1995. *Voice and Equality: Civic Voluntarism in American Politic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Vézina, M. and Crompton, S. 2012. "Volunteering in Canada." Canadian Social Trends. Statistics Canada. <http://www.statcan.gc.ca/pub/11-008-x/2012001/article/11638-eng.pdf>(2013. 9. 27 검색)
- Wang, L. and Graddy. E. 2008. "Social Capital, Volunteering, and Charitable Giving." *Voluntas*, 19, 23-42.
- Warburton, J., Terry, D., Rosenman, L., Shapiro, M. 2001. "Differences between Older Volunteers and Nonvolunteers." *Research on Aging*, 23(5), 586-605.
- White, A. 1989. "Patterns of Giving." In R. Magat, ed. *Philanthropic Giving*.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Wilson, J., and Janoski, A. 1995. "The Contribution of Religion to Volunteer Work." *Sociology of Religion* 56(2), 137-152.
- Wilson, J. and Musick, M. 1997a. "Who Cares? Toward an Integrated Theory of Volunteering."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2, 694-713.
- Wilson, J., & Musick, M. 1997b. "Work and Volunteering." *Social Forces*, 76(1), 251-273.
- Wilson, J., & Musick, M. 1998. "The Contribution of Social Resources to Volunteering." *Social Science Quarterly*, 79(4), 799-814.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Participation Inequality of Giving and Volunteering.

Sun-gsoo Joo

This study deals with the issue whether the 'inequality of participation' of giving and volunteering' as suggested by some empirical studies is applicable in Korean society. Comparing both the socioeconomic status(SES) variables(income and education) and social networking variables(group and religious activities, networking with friends and neighbors), this study focuses attention on the empirical implications of 'inequality of participation' issue. The empirical result shows that in the 'giving' model, only the level of income, welfare organization activity, neighbor networking variables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in the 'volunteering' model, rather than income or education variables, such variables as welfare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 activities, networking with people in religious and welfare organizations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result reveals the importance of the social networking among people in the participation of giving and volunteering.

key words: volunteering, giving, participation, inequality of participation, income, education, social network